

복지관 소식

중복 맞이 행사

'무더위를 이기닭! 삼계탕 나눔 행사'



〈유상범 국회의원 인사말〉



〈MG홍천새마을금고 직원〉



〈신영재 홍천군수 배식 봉사〉

지난 7월 21일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MG홍천새마을금고의 삼계탕 400마리 후원으로 노인복지관 이용회원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착한과일'에서 바나나 400송이, '만원의 힘' 후원단체 지병임 회원께서 사이다 420개를 후원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MG홍천새마을금고 직원과 홍보자문위원회

에서는 삼계탕 배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이번 행사에 참석한 MG홍천새마을금고 김생호 이사장,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유상범 국회의원도 봉사활동에 동참하였다.

홍천MG새마을금고 김생호 이사장은 "무더위로 건강관리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중복을 맞아 보양식인 삼계탕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회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 데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것 같다."라고 전했으며,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온정을 베풀어 주신 MG홍천새마을금고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더욱더 정성껏 보살피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복지관 소식

관장배 체육대회

2023년 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배 체육대회 진행



복지관 자율반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게이트볼,



탁구, 당구, 바둑 총 4종목으로 관장배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게이트볼과 바둑은 개인전, 탁구는 단체전, 당구는 단식과 복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노년기 활력소를 충전하고 이용회원과 직원 간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되었다.

현윤재 관장은 "관장배 체육대회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과 직원이 좀 더 가깝게 친목을 다질 기회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홍천군노인복지관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CONTENTS

- 02 - 기관 탐방, 경로당 탐방
- 03 - 농막 규제
- 04 - 노년기 재정 문제

- 05 - 노인 교육의 필요성
- 05 - 기자칼럼
- 06 - 한국의 금융과 자본(8)

- 06 - 인생칼럼
- 07 - 홍천과 무궁화
- 08 -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



기관 탐방**홍천농업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하는 농업의 미래**

홍천농업고등학교(이하 홍천농업고)는 전국에 3개 있는 농축산식품부 미래 농업 선도 고교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순수 농업고등학교이다.

실습 학년제로 실습을 이수하면 영농자금 융자 지원,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 농지 우선 지원 등의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재학 중에도 각종 장학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홍천 젊은 농업인의 산실인 홍천농업고등학교를 찾아가 민병하 교장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농업인과 홍천농업고 학생들 간에 어떤 연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활성화된 지역 사회 농법을 그대로 배워 홍천에서 특화할 수 있게 홍천농업고에서는 용인의 '남사화훼단지'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분화 모종을 키우면 전량 구매해 가고 있고, 화촌면의 '아로마 허브동산'에 마리골드 꽃모종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을 맺어 승마나 취미용 말들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하 교장 선생님〉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홍천에 관한 생각은 어떨까요?]

전체 12학급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청년 농업인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동물자원과는 축산 승계율이 전국 단위 학교에서 30%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우사 허가가 까다로운 만큼 현대화된 대단위 축사 단지 조성으로 청년 축산인들이 축산업 승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고 농법이나 농기계들을 최신화하여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과수 실습〉

[홍천농업고의 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부모는 학생들을 홍천농업고에 보내며 희망을 품게 하고, 교직원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천에서 청년 후계 농업인과 농산업 전문가 육성을 위해 생애 단계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홍천농업고등학교로 인해 홍천 농업의 미래 밝을 것이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경로당 탐방**홍천군 서석면 수하2리 경로당****서석면 건강한 쉼터, 수하2리 경로당**

경로당 분회 사무실을 찾아 황병근 사무장과 함께 홍천군 서석면 수하 2리 경로당을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수하 2리 경로당에서 이월선 경로당 회장님과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기자 : 수하2리 경로당 회장을 맡아 책임이 중책인데 앞으로 회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계획인가요?

경로당 회장 : 전임 회장님들이 잘 해오셨기에 저도 이어받아 회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경로당을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건강한 쉼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 회원들 말에 따르면 서석면 부녀회장 역할도 도맡아서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과 서석면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데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잘 이끌고 나가시는 비결이 있을까요?

경로당 회장 : 물론 힘든 것도 있지요. 하지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하면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서석면 수하2리 경로당은 남자 회원 38명과 여자 회원 36명이 있으며 오전,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몇몇 어르신들은 일자리 창출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현재 경로당 옆에는 농산물집하장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차량이 자주 이동하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경로당 또한 타 경로당에도 비해 아주 협소하여 농산물집하장은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취재를 마치면서 수하2리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의 이야기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밝은 웃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장과 사무장이 할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끝을 맺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농막 규제

올바른 농막 설치

‘6평의 로망인 농막(農幕)’



〈합법적인 농막〉



〈편법적인 농막〉

최근 들어 농막을 집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을 만들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반발이 크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총면적 20㎡ 이하)로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가 20㎡를 꼭 채워서 온수기가 달린 화장실에 주방 시설, 복층까지 꾸민 갖가지 농막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더해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여 바닥에 자갈 등을 깔아 주차장을 만드는 등 별장처럼 사용하는 불법적인 부분들도 있다.

〈별장인가, 창고인가? 두 얼굴의 농막〉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면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되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농지법」과 교차검검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나무 바닥(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만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당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2일 농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가 나간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반발 여론이 폭주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6월 14일에 결정했다**. 이번 규제의 발단은 감사원 문제 제기였다. 농막을 불법 증축해 호화 별장처럼 이용하거나 분양 상품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대 이하였다.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감독 방안이 담겨야 할 자리에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을 금지하거나 휴식 공간 면적을 제한하는 등 모든 농막을 겨냥한 규제들이 담겼다.

50~60대 도시 사람들이 왜 주말 농막살이를 꿈꾸며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만연한 행정 편의주의, 정책 감수성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별장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50~60대 장년층에게 농막은 은퇴 후 전원살이를 준비하는 훈련소이자,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다. 농막을 ‘6평짜리 로망’이

라 부르는 이유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막에서의 주거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야간 취침을 금지해 버렸다. 사실상 ‘농촌을 떠나라’, ‘농촌에 오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 농막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정부가 농막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욕구를 부정한 셈이다.

농막 규제는 농촌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요즘 시골 마을은 60대는 청년 취급을 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농막에서 늦은 시각 고성방가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태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있다. 이견 농막을 소유한 사람의 주의가 필요한 거지, 농막을 규제하는 것은 도시인의 로망인 농촌의 꿈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 시골 어르신은 도시 사람들의 방문을 환영한다. 도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농촌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도 있다. 지자체들이 보조금을 쥐가며 귀촌을 장려하는 것만 봐도 농촌이 귀촌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농막 규제 때문에 귀촌인들의 발길이 끊긴다면 농촌은 더 빠른 속도로 쇠락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정책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딱 거기까지가 정책의 역할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없으며,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농막 규제가 해프닝으로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일이 다른 정부 부처에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국 기자
(kookcore@naver.com)

노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필수적'이라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노인이 될수록 '필수적인 것'이 억제되거나 축소된다. 그러나 '억제되는 것'은 사실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지거나 뒤로 치워버리는 것이다.

노인에게 필수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것은 돈, 건강, 소통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노인에게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뿐만 아니라 '결핍된 삶'을 사는 존재이다.

노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경제적 토대

청장년층의 생활 재원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요즘은 주식, 가상화폐 등을 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기본은 근로소득이다. 이에 비해 노인의 생활 재원은 훨씬 다양하다. 연금, 퇴직금, 금융자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기본적인 수익자산이다. 이렇듯 노인의 수입원은 다양한 것 같지만 대부분 노인의 수입원은 사실 단순하다. 연금과 근로소득으로 집약된다. 국민연금법이 1986년에 공포되었지만 1995년에 농어촌지역, 1999년에 도시지역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민연금제도의 역사는 채 30년도 안 된 것이다.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금의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입이다.

노령연금은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이는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 이와 달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개념의 연금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에 적잖은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부부가 수령할 때는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물론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도, 전기, 연료비 등은 별 차이가 없다. 이 기본생활비 이외의 생활비 또한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과의 소득격차는 상당히 크다. 우선 노령연금에서 차이가 난다. 농어촌 주민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낼 만큼 여유도 없었고 수입이 안정적이지도 못했다. 결국 수입 면에서 보면 손해이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단돈 몇만 원의 여유가 쉽지 않다. 게다가 20년도 더 되는 훗날의 일이지 않은가.

소득격차는 근로 기회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이유는 근로 기회의 접근성에 있다. 도시에는 다양하고 많은 일거리가 있다. 아파트 경비 일을 비롯하여 택배, 단순 노무,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전단지 배포 등 크고 작은 일거리들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에는 농사일 말고는 딱히 수입이 될 만한 일거리가 없다. 일거리를 찾으려면 도시까지 나가야 하고, 오가는데 시간과 교통비가 적잖이 들어간다.

도시 실버와 농촌 실버 / 냉탕과 온탕

B씨(68세)는 요즘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다. 퇴직하고 집 한 채 유지하면서 얼마 안 되는 퇴직금 안 까먹으려고 석 달 쉬고 바로 아파트 경비 일에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70세면 경비에서 잘린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비록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이지만 고령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이 일자리가 불안하다. 물론 근무 여건과 급여가 훨씬 열악한 작은 단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점점 몸이 전 같지 않아 일의 강도를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 잊은 듯 꿈쳐둔 퇴직금을 털어야 할 지도 모르고 더 가면 집을 월세 놓고 변두리 전셋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간의 국민연금에 보태가면서 10년, 20년 길면 30년을 버텨내야 하나 싶어 걱정이 앞선다.

C씨(72세) 부부는 이제 한시름 놓았다. 평생 농사를 지어 자식 3남매를 키워 딸 둘은 여의고 막내인 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도시에서 직장생활이 힘든지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지으며 살겠다고 올 초에 결으로 왔다. 아직 농사일이 서툰긴 하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3천 평 농사를 부부가 지으려니 이제 힘에 부쳐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까 고민도 했는데 아들이 와서 도우니 마음이 놓인다.

농사 별이가 큰돈은 되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인 작물을 심으면 식구들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게다가 기초연금이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오지 않는가! 연금에 농사 수입이면 시골 살림에 별 아쉬움이 없고, 알뜰히 모으면 아들 결혼 자금 마련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어느 사회든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더 악화하는 때도 적잖다. 몇몇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맞물려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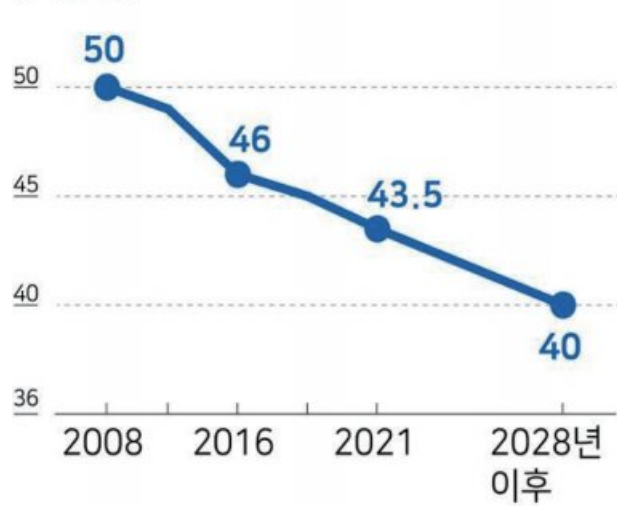
고령화는 막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할 문제이다. 그 통로의 중요 부분이 연금과 근로소득이다. 나머지 것들은 이것들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에 안정적 수입(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중요한 근간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더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이

(단위: %)



노인 교육의 필요성

성장하는 노인 교육

고령사회 ‘교육’은 ‘필수’, 함께 동참해요

교육은 노인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장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폭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대 간의 상호조력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참여를 돕는다.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부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합 교육 형태로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여 여행을 이용한 교육이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견학, 놀이,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는 방법이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일부분으로서 노인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끊임없는 자기 탐구, 자기 계발, 자기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교육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새롭게 역할을 모색하고 과거처럼 부양받기를 원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돼야 한다.



둘째, 지금의 노년 세대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므로 교육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을 보람 있고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시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소통의 장이 된다. 교육을 통해 만나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대 간 화합과 이해를 증진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다양한 이유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년 세대의 변화 의지이다. 노인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평생의 지혜를 전하고 함께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기자칼럼

삶과 죽음의 무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

인간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선을 그은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로 있다. 만약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갖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맞다. 탐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베풀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게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아직 삶도 모르는 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논어)

우리가 울리면 만물이 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의 말은 마땅히 자기에게서 나와야지 우리에게 응하듯 해서는 안 된다. 자연에서 우레는 엄청난 소리와 위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우리가 울리

면 저절로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린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무작정 큰 소리, 주위를 위협하는 위력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뜻을 세우고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방법이 확실적이어서도 안 되며, 하나의 방법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배움이란 모방에서 시작해 독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선 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밟을 때는 겸손해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어른이 된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인생은 짧다.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바탕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도 결국은 해낸다. 어려움이 닥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견뎌내야 따뜻한 봄을 누릴 수 있다. 신의 한 수는 변박이는 영감이 아니

라 끝없이 후회했던 인간의 복기에서 나왔다.

벗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잘 인도하되, 그래도 할 수 없다면 그만둘 일이지 스스로 지욕을 당하지는 마라”(공자 말)

벗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건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면 친구의 허물을 바로 잡는데 집착해서는 안 되며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친구 간에도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수시로 충고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기 괴로워진다.

진정한 친구란 말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득이 말로 해야 한다면 말은 최대한 줄이고 정성을 담아야 한다.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 진심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달된다.

공자는 사람 됨을 그 사람의 말로



판단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을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벗이 곧으면 고쳐야 할 잘못을 듣게 되고, 벗이 신실하면 함께 신실하게 나아간다. 곧은 사람은 강직하고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때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할 때에도 솔직하다.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만큼 친구 역시 나쁜 길로 이끌지 않는다.

이경희 기자

(Kyung-hee@hanmail.net)

IMF 구제금융의 대가와 고통

한국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3일 IMF는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이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가 지원을 결정하여 총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른바 경제적 경솔국이었다. 구제금융이 한국에 유입되는 가혹한 조건은 고금리 유지, 구조조정, 공공재의 영리화(營利化)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악역을 맡고 55개 기업 청산 및 매각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 재벌 해체 및 재벌들의 사업간 교통신리에 들어갔다. 소위 말하는 '빅딜(Big Deal)'이었다. 1999년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 금융을 이용한 기업 확장으로 부채가 65조로 불어나 결국 해체되었다. 2000년에는 현대그룹이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로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등 계열 분리를 하였다. 5대 그룹의 '빅딜'로 지금의 구도처럼 삼성은 반도체, 현대는 자동차, LG는 전자 및 통신을 갖게 되었으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빅딜은 성공적이라 볼 수 없었다.

고금리 상황을 보면 시중 금리가 무려 27%에 달했다. '고금리로 자본유입을 늘린다.'라는 명분이었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확장해온 국내 기업들로서는 초고금리는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

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발생시키고, 대량의 실업과 경기후퇴를 유발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실업률이 6.9%에 달해 1년 전 3배에 이르러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채는 이자에 이자를 더해 6개월간 더 늘었고 이미 줄도산한 기업으로부터의 명예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갔으나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차환 기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은 어떠했을까. 지금은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지만, 당시에는 어처구니없는 회사의 결정이었다. 평생직장에 익숙했던 가장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조치였다. 1997년 12월 14개 종금사가 폐쇄되고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지 못한 은행도 문을 닫아야 했다.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당시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20%가 직장을 잃었다. 공직사회도 전체 정원의 10%가량이 감축되었다. 전 산업계의 구조 조정 유행으로 나온 것이 지금의 사내하청과 아웃소싱(outsourcing)이다. 직영과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다단계 하청과 파견직, 비정규직이 늘어났으며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바람을 타고 일상화되었다. 이로써 노정(路程)된 소득의 양극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공공재 영리화 문제도 심각했다. 기존 국영기업이었던 전기, 가스, 철도 등 민감한 공공재가



강제적으로 민영화 추진을 압박받았다. 국민의 반발로 IMF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기한 만료가 되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아직도 국민 사이에 논의의 이슈가 되고 있다.

97년 말 하루 평균 부도업체 수가 128개에서 99년에 20개 대로 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IMF 구제금융 체제'를 조기에 졸업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그 후에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정책, IT 거품, 비정규직 문제, 실업난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김민호 기자
(minho215@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식사를 준비했다. 이어서 집 안을 청소하고 나면 다시 점심 준비를 한다. 점심을 먹고 나면 밖에서 보리, 벼, 옥수수, 밀 등의 곡물들을 디딜방아에다 찧어서 곱질 빻기고 쌀을 만들어 가루로 갈아 짬을 이용해 여튀 놓아야 했다. 몸을 콩튀듯 움직이면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루 세끼 준비하기도 바쁘는데 강에 가서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그 많은 일에 여인들은 가고 싶은 친정도 갈 시간 없이 집

냉장고로 인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니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여권운동을 부단히 해온 수많은 여성단체나 여권운동가들보다도 여성들을 일에서부터 해방해 준 가전제품인 밥솥, 세탁기, 청소기 등이 주부의 일손을 거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여권이 신장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먹던 음식 다시 집어넣으면

던 시절에는 식재료를 상하지 않게 소금을 활용하여 장아찌나 자반, 건어물 등을 만들었고, 돼지고기나 시래기 등도 굴뚝 옆에 매달아 훈제형식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음식이 변질하니 당일 먹을 만큼만 만들어 먹었었는데 냉장고가 있고부터는 식재료나 음식물의 부패를 늦추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계 만능, 믿음 시대를 열었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은 다 냉장고로 들어가 쌓인다. 여기는 자칫하면 질서 잃은 보충대가 되기도 한다. 언제 나가야 하는지, 언제 들어와 있는 병력인지 모른다. 그러니 주방에 자리 잡은 냉장고는 집 평수보다 더 빨리 몸집이 비대해져 왔다. 잘 모르긴 해도 냉장고 하나에 한 식구 삼사일 이상의 비상 음식을 비축해 놓은 가정 이 허다할 것이다.

주부의 전유물에서 이제는 누구나 같이 사용하는 냉장고, 여기에 넣으면 안심하는 믿음 때문에 넣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 언제 찾는지 모를 대기상태로 들어간다. 과연 이곳에 넣으면 유통기한도 정지되고 보관기간도 언제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있어 줄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나 않을까?

믿음의 냉장고

안일에 헤어지지 못하며 힘들게 살았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여유를 갖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냉장고다. 우리나라는 1965년 금성사에서 출시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다 1980년대부터 가정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결혼 혼수품 1번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으니 이로써 끼니마다 반찬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고달픔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

안심되는 냉장고, 이곳에만 집어넣으면 걱정 끝, 망각 시작인 안심단지다.

모든 음식의 재료는 생물이 주재료가 되며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물은 만들어 놓고 시간이 흐르면 신선도 저하로 영양가가 떨어진다거나 상하게 된다. 우선 맛이 변하고 다음은 색깔이 변하여 서서히 부패하게 되는데 이것을 냄새로, 눈으로, 맛으로 먹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냉장고가 없

옛날 우리나라의 가정 생활풍습으로 집 밖에서 해야 하는 힘든 일은 힘이 센 남자들이 하고, 비교적 힘이 약한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구분되어 있다. 여자들이 집안에서 해야 하는 일은 힘을 쓰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중 하나는 대가족 식구들의 하루 세끼 먹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다.

첫닭이 울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다. 넉넉지 못한 살림을 아껴가며 보리쌀을 불리고 반찬을 만들어 아침

홍천과 무궁화

무궁화의 고장

시들지 않는 꽃 무궁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無窮花)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가 한반도에 많이 자란다는 것이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토질과 꽃이 잘 맞아서 자생하였던 지역인가 싶기도 하다.

애국가 후렴 부분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나라 사랑과 함께 무궁화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심어진 무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생태적 특성이 우리 국민성과도 많이 닮았다.

무궁화의 특성

무궁화는 생명력이 강하며 은은한 향기가 있고 화려하지 않다. 겨울철을 제외한 어느 계절에 옮겨 심어도 잘 산다. 한여름인 요즘에 피어나는 무궁화는 7월에 피기 시작하여 시월이 지나도록 피고 지고를 계속하여 은근과 끈기의 상징이기도 하다. 꽃은 이른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꽃이 지는 모습도 여느 꽃과는 확연히 다르다. 꽃잎들이 피기 전의 모습처럼 단정하게 오므린 다음 송이채 꼭지가 빠지면서 깨끗이 떨어져 하루만의 짧았던 생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무궁화의 이런 최후의 모습은 인격과 품위를 지닌 군자의 기상을 닮았다고 말한다. 침착하

고 겸손하며, 단아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그렇기에 우리 조상들이 이 꽃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까닭이 아닌가 싶다.

이런 무궁화가 구한말부터 우리나라 국화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국가에서 공모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사랑한 꽃인지 알 수 있다.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국민의 마음에 재인식시킨 것은 남궁억 선생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일제는 우리 국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느끼는 무궁화를 말살시키려 하였으나 애국 운동에 헌신하고 교육을 통하여 조국애를 고취 시키던 남궁억은 배화학당 재직 때에 무궁화로 조선 13도를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도안하여 여학생들에게 수놓게 함으로써 민족애를 고취 시켰다.

무궁화 지도는 배화학당뿐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그것을 수놓아서 내실을 장식하게 되었고 혼례 때 입는 활옷에 수를 놓아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남궁억 기념관과 한서축제

그 후 남궁억은 1918년 선향인 홍천 모곡에 내려와 모곡학교와 모곡예배당을 설립하고 근대교육에 힘쓰며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인 것과 민족정신을 일깨웠다. 이때 일본은 무궁화를 모두 불태우고 민족정신을 말살시키려 하였고 남궁억은 무궁화 묘목 보급을 위하여 묘포를 가꾸고 해마다 수십만 그루씩 길러서 뽕나무와 함께 몰래 각 지방에 배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발각되어 모곡학교를 수색하였고 남궁억은 체포되었으며 그 후 모곡학교도 폐쇄되었으나 2004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1939년 77세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였으며 홍천은 남궁억 선생이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던 유서 깊은 무궁화의 고장이 되었다.

이에 홍천군의 마크도 무궁화를 형상화한 모양이다. 또 해마다 가을이면 남궁억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한서 문화제를 열고 있다. 홍천군에서는 모곡리에 남궁억 기념관과 교회를 세워 선생의 나라 사랑과 교육 정신을 심어 주는 홍천의 자랑스러운 역사 관광지가 되었다.



또 다른 무궁화에 삶을 걸고(무궁화 액자 보급 운동)

홍천군 남면에는 무궁화를 도자기로 빚어 만드는 최종열, 장연자 부부가 있다. 도자기로 무궁화를 제작하는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 액자로 만들었으니 언제나 집안에서 두고 볼 수 있는 무궁화인 셈이다.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많은 무궁화 액자를 보급하였으나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무궁화 보급에 앞장서신 남궁억 선생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다. 전 국민 50만 호가 무궁화 액자를 갖기를 바라며 무료로 배포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사업 이모저모****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내 이동푸드마켓 진행**

지난 6월 27일 사회복지법인 강릉중앙재단 강원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기초푸드뱅크는 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식품 기부의 효과적 배분 및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이동푸드마켓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동푸드마켓은 대형 윙바디 차량에 된장, 고추장, 즉석식품, 삼푸, 세제 등 식자재와 생활용

품 50여 종을 전시하여 참여자들이 필요한 물품 10여 종을 직접 선택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학 총동문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물품 진열 및 포장과 저소득주민들 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 거주자 100명은 이와 같은 혜택을 접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에서 개최된 이동푸드마켓이 주변 마트의 접근성이 어려운 복지주택 입주자분들에게 제공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라고 전했다.

홍천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아파트 만들기’ 사업 진행

지난 7월 10일 홍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에 방문하여 치매예방 수칙 및 치매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총 6회기로 매월 1회 진행되고 있으며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치매안심센터 팀이 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입주민 128세대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맞춤형 가정방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웃 간 나눔의 공간, ‘싱싱 옥상 텃밭’**

북방면 이동 프로그램실 3층 옥상에는 어르신들의 생활 시설의 하나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인 ‘싱싱 옥상 텃밭’이 마련되어 있다.

참가자 10명을 모집하여 대형 목재 화분 7개에 유기농 비료, 봉사, 고토 석회 등을 살포하여 준

비작업을 마친 후 모종을 심는 활동까지 진행하였다.

이후에 수확한 채소류는 텃밭 3층 입구에 소량으로 담아 입주자 어르신들께서 드실 수 있도록 하여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함께’라는 과정으로 ‘나눔’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사는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